아시아-태평양 관문의 이점 홍보 해외 활동…

해외에서 아시아-태평양 관문의 이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데이 장관은 국제 광고 캠페인을 착수했다(2009년 6월). 「저널 오브 커머스(Journal of Commerce)」,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Logistics Management)」, 「에어 카고 월드(Air Cargo World)」, 「페이로드 아시아(Payload Asia)」 등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해상 및 항공 운송 관련 간행물에 광고가 실렸다.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홍콩, 중국, 일본, 대만의 언론인들이 현지를 취재했다. TV 뉴스 1편을 포함하여 총 40편 이상의 기사가 각국 방송과 언론에 보도됐으며 아시아와 미국에서 600만 명 이상의 재계 지도자, 의사결정권자,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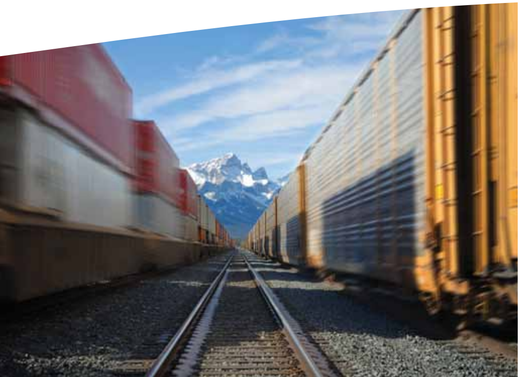
2010~2011년에 언론인들이 현지를 다시 취재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한국 언론사의 취재가 계획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09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 항로 개발 포럼에도 참가했다. 이 포럼은 국제 항공 분야에서 캐나다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캐나다 국내 공항들과 주요 항로 결정권자 사이의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500명 이상이 참가한 이 포럼은 항로 개발과 계획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포럼이다.

…국내 활동: 이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

2009년 9월 일본, 대만, 한국의 기업 의사결정권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메트로밴쿠버 항과 프린스루퍼트 항 그리고 그 밖의 태평양 관문 시설들을 시찰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 간에 미팅 기회가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로로서 빠르고 비용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인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을 소개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급망 네트워크 중 일부를 운영하는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매년 7,300억 TEU 이상의 화물 운송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의사결정권자가 캐나다 서해안 항구들을 방문한 것은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을 홍보하고 북미 수출 화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데이 장관이 1월 15일 공개한 APGCI 홍보 동영상은 관련 웹사이트 (www.pacificgateway.gc.ca)를 방문하면 시청할 수 있다.

CANADA'S PACIFIC GATEWAY

www.pacificgateway.gc.ca

©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Canada, represented by the Minister of Transport, 2010.

Catalogue No. T1-20/2010Ko
ISBN: 978-0-662-03400-1

TP 15006

CANADA'S PACIFIC GATEWAY

관문 통로 뉴스

2010년 호

새로운 이정표의 건설

아시아-태평양 관문 및 통로 구상(APGCI)이 반환점에 도달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이 다음과 같은 각종 전략 프로젝트에 배정됨에 따라 본 구상은 중대한 이정표에 다다르고 있다.

- 사이먼 프레이저 브리지 개통(2009년 8월)
- 피트 브리지 개통(2009년 10월)
- 메트로밴쿠버 항을 오가는 컨테이너의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로버츠 방조제 철도 통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캐나다 최대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델타포트에 부두 증설(2010년 1월). 제3부두의 건설로 메트로밴쿠버 항의 처리능력이 50% 확대됐다.

2010년을 맞아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듦에 따라 캐나다가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APGCI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는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관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 캐나다의 국가 경쟁력 강화
- 운송 시스템의 효율 개선
- 아시아-태평양 관문의 국제적인 활용도 증진

캐나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태평양 무역 확대에 따른 이득을 거머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며 APGCI의 다음 단계가 높은 중요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 분야에서 결연한 행동과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델타포트

2010년 – 캐나다가 세계 무대를 장식하는 해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필두로 G8, G20, 북미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2010년을 맞아 캐나다는 올 한 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1월 30일 스티븐 하퍼 총리는 2009년에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을 순방한 데 이어 이처럼 중요한 행사들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가 수행하게 될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포함하여 수 차례에 걸친 각료들의 아시아 순방은 활력을 불어넣고 캐나다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고 APGCI의 국제적인 확대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태평양 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스톡웰 데이 장관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순방하면서 태평양 관문의 이점을 각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올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의 의장국인 동시에 APEC 포트 서비스 네트워크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7,000만 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하이 세계엑스포에서 중요한 비중을 맡을 예정이다.

Canada

지속적인 성공

뉴 피트 리버 브리지 개통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 운송 통로의 안전과 신뢰성을 개선하게 될 새로운 7차선 피트 리버 브리지가 2009년 10월 27일 고든 캠벨 총리 그리고 스톡웰 데이 아시아-태평양 관문 장관을 대신하여 랜디 캠프 피트 메도우즈 메이플 릿지 미션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통됐다.

캐나다 정부는 총 사업비 1억9,800만 달러가 소요된 이 사업에 9,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부담했다.

아래로부터 위로: 연안 운송의 이점

연안 운송은 복합운송의 일종으로 하천이나 해안 혹은 호수 내에서처럼 대양을 횡단하지 않고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지점들을 연결하는 해상 화물 운송 방식을 지칭한다.

도로와 철도의 체증을 완화하고 무역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운송 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해상 운송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캐나다 정부가 브리티시컬럼비아 로위 메인랜드를 대상으로 5개 연안 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이 장관은 2010년 초에 첫 번째 연안 운송 프로젝트의 완료를 선언했다. APGCI에 따른 연방 예산 460만 달러를 투입하여 델타 애너시스 섬 해상 화물 철도 터미널에 BC 철도 바지선 램프 남부 선로가 건설됐다.

사이먼 프레이저 브리지 복선화

복선화 공사가 끝난 프린스조지의 사이먼 프레이저 브리지는 4차선을 보유하게 되어 교통 체증을 줄이고 고속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다리를 통행하는 개인차량 및 화물차량의 소통 시간을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프린스조지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프린스조지 공항, 밴쿠버 항, 프린스루퍼트 항과도 연결된다.

해운사의 유연성 확대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컨테이너 운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미국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입 컨테이너를 취급할 목적으로 관세 규정을 개정했다.

2009년 12월 15일을 기하여 발효된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 컨테이너가 캐나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365일로 늘어나며 수입 컨테이너를 지점간 운송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삭제된다.

중국과의 관계 심화

2009년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에 오른 중국은 APGCI가 출범한 이래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데이 장관은 2009년 4월 중국을 방문하여 두 건의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1. 무역 물류 협정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양국간 무역과 운송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국 정책입안자 연례 회의
- 민간 부문의 학습 및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물류 교환 프로그램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민간 부문 참가자들이 각종 시설을 방문하고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다. 캐나다 공급망-물류 협회의 주도로 1차 중국 대표단이 2009년 4~5월에 캐나다를 방문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캐나다 대표단이 중국을 답방했다. 2010년에 추가 교환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캐나다 공급망-물류 협회 홈페이지(www.sclcanada.org)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관문 협력 실행 계획

또한, 데이 장관은 첨단 응용 기술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관문 협력 실행 계획에도 서명했다. 지난해 베이징과 토론토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이후로 양국은 다음 분야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공급망 관리
- 한랭 기후 기술
- 정보 교류, 활동 공유, 공동 보고를 통한 안전 및 도로 인프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공급망 관리의 효율을 개선하고 스마트 통로 및 스마트 국경 관리 체계의 개발을 보조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에 참여하는 캐나다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2009년 7월 존 베어드 캐나다 교통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 캐나다의 교통·인프라·지역사회부 장관이 중국의 리 교통부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를 확대할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창공: 항공자유화협정의 확대

캐나다-EU 항공자유화협정

베어드 장관은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의 2대 항공·무역·투자 시장인 EU와 역사적인 항공자유화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통해 캐나다 항공사들이 EU 회원국 27개국 전체를 운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 항공사들도 캐나다 전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신규 운항권이 캐나다 및 EU 항공사들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항공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승객과 수출입 업체는 운항 도시, 편수 및 항로, 요금 인하 등에 있어서 선택권이 확대되므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협정은 지금까지 캐나다가 체결한 항공 관련 협정 중 가장 포괄적인 협정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항공자유화협정

캐나다는 2009년에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항공사들은 정기 여객기와 화물기를 편수에 구애되지 않고 상대방 국가 영토 내 어느 도시로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존 베어드 교통부 장관은 "(본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항공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전진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캐나다-일본 항공자유화협정

또한, 캐나다는 2009년에 일본과의 협정을 대폭 확대했다. 이제 양국 항공사들은 상대방 국가 내 어느 도시(도쿄 공항 2곳 제외)로건 여객기나 화물기 직항로를 편수에 구애되지 않고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무비자 환승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내 공항을 경유하는 항로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9년 7월에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보안을 보장하면서도 미국으로 입국하는 탑승객의 이동을 활성화할 의도로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이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에 이어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 국내의 다른 주요 공항들도 이와 유사한 지위를 신청할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관련 홈페이지(http://www.cbsa-asfc.gc.ca)를 방문하면 이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얻을 수 있다.

센터포트 캐나다(CentrePort Canada)

데이 장관과 개리 두어 전 매니토바주 총리는 2009년 10월 센터포트 캐나다 사업의 출범과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3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륙 항구인 센터포트 캐나다는 국제 운송, 제조, 유통, 창고 허브로서의 매니토바주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포트 사업 재원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한다.

2건의 시범 프로젝트 도 추진되었다.

- 센터포트 캐나다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 서부 캐나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및 관세 감면 혜택을 설명하고 국제 무역 진흥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밴쿠버 남해안 무역 지대 확충

2009년 10월 하퍼 총리는 남해안 무역 지대 프로젝트에 연방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3월에 발표된 북해안 무역 지대 프로젝트를 보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철도, 화물차, 항구 운영을 확대하고 철도와 도로 운송량 증가에 대처하며 현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2009년 10월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해안 무역 지대는 서부 캐나다와 태평양 무역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무역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며 "버라드 만을 따라 진행되는 이 개선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태평양 관문의 효율을 증대함으로써 무역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1억2,500만 달러 중 4,97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메트로밴쿠버 항, 밴쿠버 시, 캐나다 퍼시픽 철도, 캐나다 내셔널 철도와 공동으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직능 계발 프로젝트

캐나다가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공급망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업계 주도로 직능 계발 단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스킬 테이블(Skills Table)에서 지정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APGCI 하에 최대 300만 달러를 보조하고 있다.

스톡웰 데이 재무위원회 의장 겸 아시아-태평양 관문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관문 스킬 테이블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브리티시컬럼비아 근로자들이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직능을 계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관문 스킬 테이블은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에서 주관하는 섹터 위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50만 달러를 투입하여 2008년 가을에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대상으로 운송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채용, 직원 유지, 직능 계발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련 홈페이지(www.apgst.ca)를 방문하면 스킬 테이블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피트 리버 브리지

CANADA'S PACIFIC GATEWAY

1. **프린스루퍼트 항 컨테이너 보안 프로그램($2,800만)**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의 해상 컨테이너 프로그램(Marine Container Program)을 통해 페어뷰 컨테이너 터미널(2007년 가을 개장)에서의 수출입 보안과 효율을 보장하고 있다.

2. **밴더후프 인근 고속도로 확충 사업($105만)**
프린스루퍼트 항과 국가 간선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16번 고속도로의 2km 부가 추월 차선 및 교차로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프린스조지 리버로드($350만)**
리버로드는 CN에서 운영하는 프린스조지 복합운송 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주요 도로의 이름이다. 이 사업을 통해 캐머론 스트리트 브리지와 폴리 크레센트를 연결하는 1.9km 구간 및 CN 프레이저 리버 브리지와 폴리 크레센트를 연결하는 1.7km 구간을 확장하고 시설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화물의 원활한 이동과 지역사회를 위해 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사이먼 프레이저 브리지 복선화 사업($1,800만)**
이 사업은 프린스루퍼트 항 컨테이너 시설과 조만간 완공될 프린스조지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사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화물 이동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 8월부터 통행이 시작됐다.

5. **프린스조지 인근 97번 고속도로 개선 사업($420만)**
브리티시컬럼비아 내에서 100마일 하우스와 윌리엄스 호수를 잇는 라이트 스테이션 커브의 남북 간선도로 4.2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프린스루퍼트 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6. **입체교차로 사업(브리티시컬럼비아·$700만)**
스미스너와 테라스(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입체교차로를 건설할 경우 화물차와 현지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유도하며 처리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복합운송 철도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다.

7. **2번 고속도로와 41번 도로 복합운송 진입로(에드먼튼·$7,500만)**
새로 건설되는 인터체인지를 통해 캐나다 퍼시픽 철도(CPR) 복합운송 시설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8. **인터체인지 및 사우스 리버 크로싱 브리지 건설 사업($1억600만)**
론 애비뉴와 서클 드라이브 사우스, 아이다와일드 프리웨이와 서클 드라이브 사우스 간 인터체인지를 통해 CN 복합운송 터미널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사우스 서스캐처원 강을 가로지르는 6차선 교량을 신설할 경우 도심으로부터의 화물 및 기타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9. **트랜스캐나다 고속도로 확충 사업($800만)**
소렌토와 샐먼 암을 잇는 4.3km 구간을 확충할 경우 로워 메인랜드 컨테이너 항과 아시아-태평양 시장 그리고 캐나다 전역을 오가는 상업 화물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 연계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10. **트랜스캐나다 고속도로 확충 사업($2억6,700만)**
밴프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트랜스캐나다 고속도로 구간을 복선화할 경우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자랑하는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이의 관광객 교류와 상업 물동량을 확대할 수 있다. APGCI는 이 사업에 $3,700만을 투자했다.

11. **52번 SE 도로, CPR-웨스턴 헤드워터스 입체교차로 사업(캘거리·$3,450만)**
이 사업을 통해 52번 스트리트 SE 도로를 114번 애비뉴에서 130번 애비뉴 SE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90번 애비뉴에서 106번 애비뉴 SE까지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CPR 선로와 웨스턴 헤드워터스 운하 사이의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며 교차로를 개선하는 동시에 유수 처리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12. **레지나 지역 복합운송 사업($2,700만)**
파트너 기관들은 레지나 시 외곽에 위치한 CPR 복합운송 터미널을 이전하고 신설되는 대형 터미널로 연결되는 적절한 진입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13.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입체교차로(포티지 라 프레리·$2,100만)**
서해안과 북미 시장을 연결하는 경쟁력을 갖춘 운송 및 물류 시스템의 일환으로 옐로우헤드 고속도로와 트랜스캐나다 인터체인지 및 CN 간선 선로 도로/철도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4. **센터포트 웨이(위니펙·$3,325만)**
잉스터 도로 확충 작업을 포함하여 기존 사업안의 주요 요소들을 다수 통합시킨 사업이다.

15. **지역 교통 관리 센터($500만)**
센터 직원들은 교통 상황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로워 메인랜드의 주요 고속도로 및 환승 시스템에 관한 여행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6. **피트 리버 브리지 및 메리 힐 인터체인지($9,000만)**
현재 개통된 상태인 이 7차선 대교는 로워 메인랜드를 통한 복합운송 물류 흐름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트 강 양쪽의 무역 관련 시설과 운송 시설을 연결하고 있다.

17. **프레이저 북부 순환 도로 및 유나이티드 블러바드 연장 사업($6,500만)**
4차선 도로를 연장하고 4차선 고가도로와 브루넷 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건설할 경우 항구와 철도 조차장 사이의 연결이 확대되고 철도 및 교통 효율이 개선될 예정이다.

18. **리치몬드 시($547만)**
웨스터민스터 고속도로와 넬슨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와이어리스 도로와 91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건설할 경우 관문 시설을 지원하는 도로의 효율이 개선될 예정이다.

19. **프레이저 항 준설 사업($400만)**
운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경우 밴쿠버-프레이저 항만공사의 효율이 향상되는 동시에 해상 화물 처리능력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20. **델타 공사($183만)**
체스터 로드/더원트 도로, 체스터 도로/클리비든 도로, 브루크 도로 및 셰퍼드 도로와 노델 도로의 교차로를 개선할 경우 애너시스 섬에서의 화물차 운송이 확대될 예정이다.

21. **로버츠 방조제 철도 통로 도로/철도 입체교차로($7,500만)**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과 석탄 터미널을 북미 철도망에 연결시키는 70km 구간을 따라 도로/철도 입체교차로(최대 9개), 도로 폐쇄, 도로망 재구성, 교통 관리 조치 등을 통해 도로와 철도 처리능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예정이다.

22. **프레이저 남부 순환 도로($365만)**
40km 길이의 4차선 도로로서 델타포트와 1번 고속도로 그리고 골든 이어즈 브리지를 연결할 예정이며 국제 화물의 이동을 확대하고 지역 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계획이다.

23. **로버츠 방조제 확장**
캐나다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인 델타포트가 2010년 초에 제3부두를 개장했다.

24. **버라드 만 북부 해안 5개 사업($7,500만)**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캐나다의 태평양 관문 항구와 철도에 대한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외와의 무역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북부 밴쿠버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로서 브룩스뱅크 애비뉴 지하차도 사업, 넵튠/카길 입체교차로 사업, 로우 레벨 도로 재조정 사업, 펨버튼 애비뉴 입체교차로 사업, 웨스턴 로워 레벨 루트 머린 드라이브 연장 사업이 있다.

25. **남해안 무역 지대($1억2,500만)**
고용 창출 및 시내 전반의 교통 소통 개선에 추가하여 철도, 항구, 화물차 운송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사업이다. APGCI는 이 사업에 $4,970만을 투자했다.

로워 메인랜드 5개 연안 운송 사업($2,090만)
이 사업들을 통해 국제 무역 화물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도로 체증을 줄이고 선박 화물 터미널에서의 처리능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운송 수단을 개발할 목적으로 보완적인 연안 운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에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비롯한 그 밖의 서부 지방 자치 정부들과 항구 및 철도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들의 투자 약속, 실사 절차 완료, 투자 약정 체결, 최종 연방 사업 승인이 요구된다.

Canada